로마서 4장

롬4:1 그런즉 "육신으로 우리 조상 된 아브라함이" 무엇을 얻었다 하리요

  육신으로 조상된 아브라함에 대한 이야기를 하고 있다.

  그들의 조상이고, 이스라엘 민족의 시초라고 할 수 있는 아브라함은 어떻게 의를 얻었냐 하는 이야기이다.

  유대인들에게 쓰여진 이 로마서가 굉장히 강력하다고 생각이 드는 것이

  유대인들의 생각에 그대로 직격탄을 날리는 말을 한다는 것이다.

  이런 교제가 참으로 중요한 것 같다.

  정말 그 의문점과 그 마음에 갈등을 한방에 해결해주는 말씀.

  이 잘 다듬어진 말씀이 사람들을 변화시킬 수 있는 것이다!

  이런 말씀을 나누는 교제가 된다면

  사도바울과 같이 Powerful 한 삶을 살 수 있지 않겠는가.

롬4:3 성경이 무엇을 말하느뇨 아브라함이 하나님을 믿으매 이것이 저에게 의로 여기신 바 되었느니라

  근데 오직 하나님을 믿는 것만으로 의로 여기신바 된 것이다.

  "믿는 것과 의롭게 되는 것." 이 두개는 너무나 상관 없는 것 같은데..

  주님께선 받는 것을 의롭다하시는 분이시다.

  받아들이는 것을 훌륭하다 하시는 분이시다.

  구원의 조건으로 받는 것을 내거시는 분이시다.

  아브라함이 그러했다.

*(6절)* "받는 사람의 행복!"

  진짜 신기하다.

  주님은 자비를 기뻐하시고, 긍휼을 원하시는 분이시다.

  죄를 사유하시기를 즐기신다고 하셨다.

  싫은데 억지로 해주시는 분이 아니라

  하는 수 없이 해주시는 분이 아니라.

  받는 것에 대해서 기뻐하시는 분이시다.

  주님 앞에서는 누릴 것 밖에 없는 것이다.

*(요10:10)* 풍성히 얻게 해주시려고 오셨다 하셨다.

  그러므로 매일의 Quiet Time이 얼마나 기쁨이 되는 시간이며

  매일의 삶이 항상 잔치하는 삶으로 나를 불러주시는 것이다.

  주님께 잘 받는 삶을 살아야 되겠다.